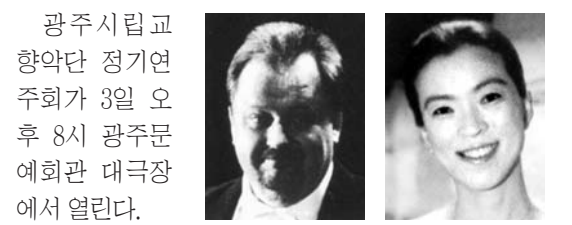


문화

광주시향, 3일 정기연주회

미하엘 헬름랏 객원지휘
플루티스트 이소영 협연



미하엘 헬름랏 이소영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3일 오후 8시 광주주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미하엘 헬름랏이 객원지휘자로 참여, 지휘봉을 잡는다.

미하엘 헬름랏은 브람스 '교향곡 4번'이다. 서정적인 도입부의 벨로디가 인상적인 1악장 등 들을만한 가늘넓어 어울리는 작품이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상임단원 공개 모집

총 9명... 22일까지 접수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상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모집 인원은 총 9명으로 공석중인 악장을 비롯해 바이올린수석, 첼로수석,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바순, 하프, 타악, 공명기회·홍보 등이다.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며 응시원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gjart.net)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연주자는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공연기획·홍보단원은 서류심사와 면접만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062-613-8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정직 1개월 징계

광주시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원의 실기평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A 전 광주시립합창단 단무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전 단무장은 지난 2009년 모 단원의 실기평가 점수를 임의로 10점을 올려 평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직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분부는 지난 30일 A 전 단무장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최근 광주지역에 갤러리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예술의 거리에 있는 나인갤러리 모습. <광주일보 자료>



다양해진 전시공간, 작가도 관람객도 즐겁다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광주가 갤러리 전시시대를 맞고 있다. 아시안문화중심도시 추진과 맞물려 최근 다양한 전시공간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기업과 관청들도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갤러리 운영에 뛰어들고 있다.

▷ 광주지역 전시공간 57곳=월간 미술정보지 광주아트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는 57곳이다. 이는 최근 3~4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며 과거 예술의 거리에 몰려 있던 것과는 달리 지역 분포도 다양해졌다.

예술의 거리(19곳)를 중심으로 중의공원(5곳), 북구 지역(11곳), 서구 광천·농성동(6곳), 동구 중심사 일대(5곳), 대인시장 지역(4곳), 기타 지역(7곳)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무등갤러리,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일곡갤러리, 자미갤러리, 북구청갤러리, 황계갤러리, 광주역갤러리, 남구문예회관전시실,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관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갤러리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

여기에 대인시장 프로젝트로 3곳의 갤러리가 새로 생겼고, 식당과 병원 등도 뛰어들면서 전시공간은 더욱 북돋아진 듯 늘었다.

▷ "창작과 판매에도 도움"=갤러리가 늘고 있는 것은 미술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 작가들이 개인전을 열기 위해서는 갤러리에 1일 15만~20만원의 대관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저가나 무료 대관을 해주는 공간도 생겨, 작가들은 부담이 줄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젊은 작가들도 더 없이 좋은 작품 발표 기회를 잡았다.

또 갤러리의 위치가 광주 전 지역으로 파고들면서 더욱 다양한 전시회가 기획되고 있으며, 작품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한 서양화가는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갤러리라고 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작품을 많이 판매했다"고 말했다.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미술 시장이 광주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 기존 상업갤러리는 '울상'=양적 팽창 속에 질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작가, 갤러리·미술관, 평론가는 미술계의 삼각 축이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상업 화랑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전시공간을 무료로 내놓는 곳이 많아져 상업화랑의 대관료 수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면서 몇몇 상업화랑은 아예 기획·초대 전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업화랑들이 국내외 아트페어와 경매로만 눈을 돌리고 있어, 지역 작가 발굴과 육성이라는 기능은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잘 되는 집'으로 불리는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백화점이 운영하는 갤러리들은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대관 예약이 줄을 서지만 기존 상업화랑들은 아예 개점 휴업 상태다.

또 관청이 운영해 저렴하거나 무료 대관을 해주는 곳으로만 작가들이 몰려, 상업갤러리들의 운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 한 갤러리 관장은 "전시공간이 다양해지는 것은 좋지만 광주는 지금 포화상태"면서 "관청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무료 대관을 해주면 상업화랑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갤러리 57곳 3~4년새 2배... 亞중심도시·기업 문화마케팅 한 몫 지역작가들 전시 기회·작품 판매 도움... 기존 상업화랑은 운영난 심화

'Why?' 시리즈

4000만부 판매

어린이 대상 학습만화인 'Why?'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4000만 부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출판업계에 기록적인 수치로, 한 콘텐트의 도서가 4000만 부 이상 팔려 공식적인 집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판사 에리당은 1일 "'Why?'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5월 말 기준으로 4000만 부를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5월 3000만 부를 돌파한 지 1년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동안 판매된 책을 쌓아올리면 높이가 63빌딩

의 2410배인 600km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Why?' 시리즈는 초등학교생인 '엄지'와 '곰지'를 주인공으로 박사와 그의 조수가 등장해 과학 지식과 정보를 만화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부터 인문·사회로 영역을 확대했다.

에리당은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CJ오쇼핑을 통해 'Why?' 시리즈 4000만 부 판매 돌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휴과 불이 빛어낸 '자연의 미학'

박재연 개인전, 8~14일 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

도에는 휴과 불이 만나 빛어내는 '자연의 미학'이다. 회화·조각·디자인적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예를 선보이고 있는 박재연(조선태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씨가 오는 8~14일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 라이트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몸짓'을 주제로 도예의 한계를 뛰어넘은 모빌 연작 등을 선보인다. 강렬하고 역동적인 무용수들의 몸동작을 도자기로

표현했고, 모빌 연작은 발레 공연을 보는 듯 환상적이다.

중앙대 예술대학과 같은 대학원을 나온 뒤 파리, 서울, 부산 등지에서 12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중국 청도 아트페어 등에 참여 했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몸짓'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표오염병원, 광주역동 공점, 광주역동 하미스포텍, 군산시 바이오 미셀공점, 해남 쌀밭면도, 곡성석곡 공점.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자연녹지(물류용) 공적정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대표번호: 41-0163369호. 한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널 공원사거리)